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가족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들녘에도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가내 두루 평안하길 바라옵고 하시는 사업마다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영광스럽게도 IOC 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 도쿄하계올림픽은 중지를 모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생활체육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인 가족 여러분!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따뜻한 정은 나누되, 과도한 선물이나 분에 넘친 허례허식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단 추석 명절이 아니더라도 청렴한 체육환경을 만드는데 우리체육인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힘든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삶에 지친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는 모두가 함께 웃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따뜻한 추석명절 보내시고, 귀성·귀경길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 드림